

“1인당 매주 신용카드 한장 분량 미세플라스틱 섭취”

세계자연기금·호주 뉴캐슬대 공동연구결과 발표

섭취량, 한달이면 칫솔 한개 분량…1년이면 250g 초과해

50건 이상 인체 미세플라스틱 섭취 종합 분석 첫 연구

“인간에 영향 뿐 아니라 순환체계 혁신 필요성 보여줘”

물과 패류, 맥주, 소금 등을 통해 사람들은 매주 신용카드 한장 무게에 해당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세계자연기금(WWF)과 호주 뉴캐슬 대학이 진행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에 따르면 매주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미세 플라스틱 2000여개를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게로 환산하면 5g인데 신용카드 한 장이나 불펜 한 지루를 먹고 있는 셈이다.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은 한 달 이면 칫솔 한개 분량인 21g 1년이면 250g를 초과한다.

이번 연구는 50건 이상의 인체 미세플라스틱 섭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로, 플라스틱

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WWF는 보고서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 원천 차단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체계 혁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뉴캐슬 대학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 수를 질량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개발, 향후 잠재적인 인체 독성학적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비해 미국과 인도 식수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2배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적 요인도 작용한다.

소모품 중에서는 패류와 맥주, 소금이 가장 높은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WWF는 전했다.

WWF에 따르면 연간 800만톤 이상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2030년이면 1억 톤 이상이 자연에 그대로 버려질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 생산된 플라스틱 양이 2000년 이전 전체 생산량과 비슷할 정도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최근 들어 늘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1이 자연에 유출됐다는 통계도 있다.

이로 인해 270종 이상 아동생물



종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봤고 240종 이상이 플라스틱을 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만 연간 80억달러(약 9조4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마르코 람베르티니 WWF 사무총장은 “플라스틱은 해양과 수로를 오염시키고 해양생물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몸 속에 존재하며 우리는 플라스틱 섭취를 피할 수 없다”며 “플

라스틱 위기에 맞서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지금, 우리는 전 세계 공동의 목표를 포함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병 물만 마시면 미세플라스틱 흡수 2배”



플라스틱병에 든 물을 마시면 수돗물을 마실 때보다 미세플라스틱 조각(particle)을 배 이상 더 흡수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연구팀 학계 보고…미국인 1인당 평균 7만4천~12만1천개 미세플라스틱 흡수 수돗물만 마시면 미세플라스틱 양 반으로 줄어…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 시사

다. 지난 5일(현지시간) CNN,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빅토리아대 연구팀은 이날 환경과학&기술지(EST)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기존의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미국인 1인당 평균 7만4000~12만

1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음료, 음식, 호흡 등을 통해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성별과 연령별로 세분화하면 남성은 평균적으로 연 12만 1000개, 여성은 9만8000개, 남자어린이는 8만1000개, 여자어린이는 7만4000개이다. 절반 정도는 음식이

여자어린이는 6만4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돗물만 마셔도 미세플라스틱이 몸안에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병의 물을 마셨을 때보다는 적다. 남성은 연6000개, 여성은 4000개, 남자어

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미국인의 미세플라스틱 흡수에 관한 우리의 평가는 매우 괴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며,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영국 국립해양센터의 미세플라스틱 연구 책임자 리처드 램피트 교수는 위 연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미세플라스틱’의 정의가 아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의 앤리스데어 그랜트 교수 역시 “이 정도의 미세플라스틱 흡수량이 인간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는 증거가 제시돼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湖南新聞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批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